



16년
조세혁, 또다시 세계 정상에 우뚝

전주매일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음 11월 13일) 제315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5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상생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외 16개 기관·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생 협약식을 갖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성공개최 '한마음'

전북도, 교육청·언론·대학·출향단체 등 16개 기관과 상생 협약 체결

100만 서포터즈 구축 'DYD 메타버스' 실현 등 지속가능 네트워크 구축

도내·외 16개 기관·단체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북도는 5일 도청 회의실에서 이들 기관·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상생 협약식을 갖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서거석 도교육감, 김동수 범도민지원위원회 이사장, 조정남 신지식경제부 이사장, 한병규 JTV 전주방송 사장, 김한광 전주MBC 사장,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 박은숙 원광대학교 부총장,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 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 남천현 우석대학교 총장, 강희성 호원대 총장, 박정운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상생 협약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개최를 위한 100만 서포터즈 구축사업인 'DYD(Draw Your Dream) 메타버스' 실현과 내년으로 다가오는 잼버리 행사의

부업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각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유지 등을 위해 기획됐다.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들은 앞으로 100만 서포터즈의 커뮤니티 채널로 'DYD 메타버스'를 활용해 홍보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잼버리 개최 이후에도 청소년리더센터와 연계해 청소년들의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에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정운 총장은 "세계인의 축제 잼버리에 전 세계 45개 외국어를 교육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글로벌 인재들과 각 대학의 훌륭한 인재들이 함께 모여, 자원봉사를 통해 170여 개 국가 청소년리더들과 국제우정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 세계 화합의 장을 여는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지구촌 청소년 대축제인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개최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잼버리 플랫폼 구

축을 위한 글로벌 협약으로 그 의미가 크며, "이를 계기로 잼버리가 미래 지향적 가치를 실현하고 세계 속에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잼버리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 이어 6일에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100만 서포터즈 'DYD 메타버스' 발대식을 열고, 공간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가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잼버리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일 전망이다.

한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전 세계 170여 개국 5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너의 꿈을 펼쳐라(Draw Your Dream)'라는 주제로 내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새만금 세계잼버리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행사기간 개명식, 폐회식은 물론 모험과 문화 전통이 어우러진 다양한 교류행사와 포럼 등을 통해 젊은이들의 열정과 열기가 넘치는 역대 최고의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수 기자

'무형유산 만나러 남원으로'

7~10일 춘향예술회관 일원서 '대대손손 너나들이'

지붕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무형유산의 도시, 남원에서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무형유산 대항연이 펼쳐진다.

2022 남원무형문화유산주간 대표(系系대대손손) 너나들이가 그것.

문화재청이 지원하고 남원시가 주최하며 (사)무형문화연구원이 주관하는 '2022남원무형문화유산주간 대대손손 너나들이'는 지난 2016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됐던 남원시가 올해 문화재청 '2022지역무형유산보호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성과를 공유하



는 무형유산 전승 리플레이 프로그램이다.

이에 남원시와 (사)무형문화연구원은 오는 7일부터 춘향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무형유산 역량강화 워크숍 △남원 미래무형문화유산 발굴 육성을 위한 학술대회 △네트워크축제 4계절무형유산네들이 등 총 4가지 프로그램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 2016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된 만큼 무형문화의 가치를 소중하게 지켜온 남원시에서 2022남원무형문화유산주간 '대대손손 너나들이'를 마련하게 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자리를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고 시대마다 변주되며 재창조되는 무형유산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도교육청, 유아 무상교육 예산 재검토하라"

도의회 환복위, "사립유치원 무상 지원, 갈등 유발"

"타 교육기관 선택 아동 소외시켜"… 예산 형평성 거론

"인심은 교육감, 책임은 의회에 넘기는 꼴" 책임 물어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전북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 예산 편성이 갈등을 유발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권리사진 3면)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 교육청의 본예산 신규사업인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의 무상교육이 이뤄진다면 많은 학부모들은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위원회는 "본 사업의 경우 유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타 기관과 협의 없이 진행됐다"며 "예산을 상정할 때 협의 당시 제시했던 13만5,000원에서

은근슬쩍 급식비 명목으로 5만6,000원을 상향해 1인당 19만1,000원을 본예산에 올려 지금의 갈등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예산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1만1,489명에게만 지원되는 예산으로 사립유치원이 아닌 다른 교육기관을 선택한 2만1,799명의 아동을 소외시킨다"며 예산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아울러 "유아교육법 24조 2항에 따른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교육기관 선택권 또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아교육법 24조 제2항'은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

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오는 2023년부터 26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원액을 증가해 26년도부터 무상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명확한 답변과 해결방안 없는 상황 속에서 관련 예산을 심의해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아이들을 불모로 의회를 겁박하는 전북교육청의 무책임한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졸속으로 수립된 전북교육청의 유아 무상교육비 예산과 관련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거석 교육감이 자신의 공약 사업을 위해 인심은 교육감이 쓰고 책임은 의회에 넘기는 꼴이다"며 "기자회견 앞서서라도 교육청에서 13만 5,000원으로 내린다고 했으면 기자회견을 없었을 것이다"고 책임을 물었다.

/김경수 기자

2023. 1. 1. 시행

시민 중심, 으뜸 정읍

정읍 고향사랑 기부제

정읍 고향사랑 기부 어렵지 않아요~

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읍이 아닌 국민 누구나	어떻게?	온라인 : 검색창에 "고향사랑 e음" 오프라인 : NH농협
얼마나?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법인 기부 불가)	기부혜택은	세액공제 + 답례품
언제?	2023. 1. 1.부터	뭐하는데?	지역민의 복리증진 사업 추진

정읍시 답례품은...

- 농특산물 쌀, 귀리, 쌈채소, 토마토, 만감류, 잡곡류, 태추단감
- 가공식품 쌍화차, 고춧가루, 마시는 죽, 감식초, 전통주, 한과, 기름류(참·들기름), 오리, 떡
- 고가답례품 한우, 지방제품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또는 '내가 방문하고 응원하고 싶은 곳'
내 고향을 사랑하는 가장 쉬운 방법,
정읍 고향사랑 기부로 함께해 주세요!



정읍이 더 살기 좋아집니다.

문의 : 정읍시 고향사랑기부금T/F팀 ☎ 063-539-5067~5068

